

“교만은 불신앙이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항해하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장애를 제거해야 올바른 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많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가장 정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신앙의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영광을 누리다가, 스스로 자만하여 다시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네 믿음을 보이라!(믿음으로 항해하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낮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 .

어떤 회사에서 사원 모집 광고를 내자 7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시험장에는 한 사람씩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는 그저 사방에 큰 거울이 하나씩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각 거울 위에 적힌 질문에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는 답을 쓰면 되는 것이죠.

질문은 이랬습니다.

1. 당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정직합니까?
2.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3.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시험 문제의 전부였습니다.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자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놀랍게도 7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정직한 사람, 즉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가끔 저와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본질을 왜면하고 빙빙 돌려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화하기도 힘들고 답을 찾기도 힘이 듭니다.

신앙은 가장 분명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은 늘 자신을 잘난 척 하는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도 또 다른 교만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어떤 것도 교만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교인에게 이런 일을 좀 하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아주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대답은 대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또 하나는 다른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솔직하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나 자신을 보는 나의 생각과 믿음이 깨어질 때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의 답을 제시합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믿음을 보이는 첫 번째는 솔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서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

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교만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 지를 묵상하고 결단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깨어질 때. . .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들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어느 여인이 기차역에 도착해서 잡지책과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대합실에 있는데 한 남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옆에 놓아둔 과자봉지를 뜯는 것이 아깝니까! 놀랐지만 모른 척 하고 이 여인은 뜯어진 봉지에서 과자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자가 눈치 채고 물러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과자를 또 집어 먹습니다.

그 여인은 남자를 보면서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아무 말 못하고 계속해서 과자를 하나씩 집어 먹었습니다. 남자도 말없이 과자를 하나씩 집어 먹었습니다. 어느새 과자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마지막 과자를 절반으로 쪼개서 한 쪽을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인심을 썼습니다. 대답하게도 말입니다.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런 강심장이 있다니!”

기차를 타고나서도 그 남자의 뻔뻔스런 모습이 떠올라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휴지를 꺼내려고 가방을 여는 순간, 이 여인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백 속에 과자 봉지가 그대로 들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뻔뻔스럽게 생각했을까?

뻔뻔스러움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 믿음이 깨어질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을 경험한 자 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던 자신의 능력이 깨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다하다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 저 바닥까지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우리아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빛나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자신을 믿고 걸어가는 삶은 눈을 가리고 앞을 향해가는 불확실함, 그래서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인생과 동일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는 김중우 선교사가 보내온 글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선교사가 7살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집 앞에 도로가 있었고 그 도로 중간에 폭이 6m 정도 되는 시냇물이 흘렀습니다. 그 시냇물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었구요. 다리의 폭은 3m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소년은 다리 앞에 서서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다리 앞에 섰습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호흡을 시작으로 한 걸음씩 대딛었습니다. 소년의 생각에는 반듯하게 가고 있다는 즐거움과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을 대딛기도 전에 소년은 시커먼 구덩물이 있는 시내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종우야!”라고 하시며 놀라서 달려오셨습니다. 2m 다리 아래로 떨어진 소년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위로 올라왔고, 깨끗하게 목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다시 그 다리 앞에 섰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도전의 끝은 성공.

불연히 타오르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끝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소년은 다시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이 멍청한 놈아!” 그날 소년은 몸을 씻으며 어머니에게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고 가지 말아야지. . .”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이 될 때에 꿈이 미소를 머금고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앞서 가지만 방향을 잡지 못한 자신감이 여러분들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불신앙의 표시 "과속"

교만의 또 다른 형태,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은 인생의 '과속'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앞서가는 우리의 인생은 늘 과속합니다. 과속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과속하는 순간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도 피할 수 없고, 부딪치고 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Christianity Today] 6월호에 ‘정의’ 사역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오랫동안 상담하고 위로해 주었던 존 오트버그 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트버그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수없이 많은 비영리 단체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회사업가들이 왜 쓰러지는지를 고민하며 그들과 상담해 왔습니다.

그는 이들의 열정은 순수하고 정의로우나 뿌리보다는 가지들이 더 빨리 자라나는 나무처럼 윗부분이 무거워 불안정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토버그의 말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내 영적 생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상처의 대부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과속으로 인한 것들이 아닌가요?

[물위를 걸으려면 배를 버려라]의 저자인 전영호씨는 자신의 삶에서 교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과로로 인해 심장 판막 수술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설 때 집도키는 "속도 내면서 피 말리지 마세요."라고 신신 당부를 합니다.

폭주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결국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속하게 됩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총알택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깊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시속 150km 이상을 밟으며 앞차와의 거리를 불과 2-3m 밖에는 두지 않고 달리는 택시 안에서 승객들은 손을 꼭 쥐고, 다리가 마비 될 정도로 힘을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빨리 달리는 총알택시만 폭주족이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 역시 폭주족입니다. 왜냐하면 총알택시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떠한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속도를 내는 내 모습,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내 모습,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조바심을 내며 불평하는 내 모습,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애를 태우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면,

언제부터인가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을 보이라!"

전영호씨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생사를 넘나들며 달리는 폭주 차량의 본네트에는 쌍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물이 흐르는 개천이 나오면 돌아가야 하는데 전속력으로 질주해 점프를 하려고 합니다.

마치 달걀 삶아 먹을 시간을 절약하려고 알 낳으려는 암탉에게 펄펄 끓는 물을 강제로 먹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다고 알이 익어서 나오겠습니까?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때,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을 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믿음의 멘토를 찾아 조언을 들어야 하고,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춘각을 다투는 일이라 예배조차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속을 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충족함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순간에 얻어야 하는 위로와 힘이 무엇일까요?

누구에게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 조급해 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배워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서 깨어지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걸음마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학습의 과정이 엄마가 보기에는 짜증이 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걸음마가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아이를 옥박지르기도 하고, 아이의 능력에 부치는 일로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이유 없는 학대를 받게 되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임산부들은 이상한 태교를 강압받기도 합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영어와 한글 공부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책을 읽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들이지요. 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산모가 받는 스트레스, 태아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면서 "헬로 맘! 저를 낳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좋은 아들 될게요."라고 하면서 의젓하게 나온다면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믿음으로 향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과속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유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향해하는 배에 돛이 달려있는 이유는 바람을 타고 빨리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면 그 돛을 내려야 합니다. 폭풍을 이기는 것은 때로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말기고 기다리

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풍 속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산에 올라갈 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힘들이지 않고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여 올라가는 사람들이 인내하고 바라보는 그 산의 풍경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산을 정복하고 나면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힘들게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찬송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찬송하는 사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낭을 메고 힘들게 올라간 곳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기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등산해 가는 과정에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비지땀을 흘리며 올라가는 인생,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올라가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때로는 느린 것 같지만 땀을 흘리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발을 내 디딜 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겠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않네. . ."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변화산 특별기도에 나와 "벼락출세, 벼락부자, 벼락스타"를 꿈꾸십니까?

벼락을 따라다니면 결국은 날 벼락을 맞게 됩니다.

이번 변화산을 통해 한 번 진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노임환 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인사를 나누다가 제 건강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제가 아팠던 시간들과 공황장애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구요.

그런데 저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전처럼 완전하게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조금만 무리를 하면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임환 권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의 지금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조금은 약함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무리하지 않고 살도록 만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기에, 무척 속도를 내고, 내가 속도를 내면 뭐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속도를 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도보다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보다 빨리 가려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이제 신앙으로 믿음의 항해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